제 1553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21년 11 월 21 일

§ 교 회 목 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 행 동 지 침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추수감사절·위임식·임직식·교회설립 30주년 축하 메시지

모두가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그 크신 은혜 긍휼 평강을!
저주받은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찌꺼기 같은 인생을
값진 진주와 존귀한 적자와 같이 사랑해 주심을!

고맙습니다.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국권을 빼앗긴 을씨년스런 조국에서 태어나
이름도, 소유도, 권리도 없는 버려진 종이로소이다.
전쟁으로 아버지까지 빼앗기고,
기회도 능력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종이 무엇입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 숨 쉬는 것만도 감지덕지인 병약한 나에게
몸 되신 교회를 주시고,
가족과 훌륭한 동역자와 일감과 비전까지 주셨으니
감사 말고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보급 인도 충만 교통케 하심이
평생, 아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위임식,
천국일꾼 임직식
서울교회 설립 30주년
모두가 꿈꾸는 것같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은 쓰거운 지난날도, 엉성한 현실도, 불투명한 미래도
서울교회 성도들은 다함께 감사, 감사 감사하는 날입니다.

원로목사 이종윤

위임식 축하

손달익 담임목사님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가 되기를

류영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증경 총회장이신 손달익 목사님. 서울교회 위임예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에도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이 아프셨고, 힘드셨는데 오늘처럼 좋은 일이 있기 위함이었던 걸로 믿습니다. 이제 서울교회가 30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가는 말씀의 터전 위에, 교단의 정체성의 터전 위에 멋진 교회로 영향력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교단 속에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년을 지내면서 또 다른 30년의 멋진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울교회가 화합하고 부흥,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영훈 목사(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할렐루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섬기고 있는 총회장 이영훈 목사입니다.

서울교회 3대 위임목사 위임식에 참석하신 교계 지도자 여러분들과 서울교회의 제직 성도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서울교회 제3대 위임목사에 손달익 목사님께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손달익 목사님은 오랫동안 서문교회를 시무하시며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총회장 및 CBS 이사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신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저와 함께 여러 가지 교계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손달익 목사님께서 서울교회 제3대 목사로 위임받으셨으니, 한국 교계 원로 되시는 이종윤 목사님의 귀한 헌신과 섬김의 사역을 발판으로 삼아서 서울교회가 화합하고 부흥,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서울교회가 손달익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아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달익 목사님의 위임목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위임목사로 취임하시는 손달익 목사님과 서울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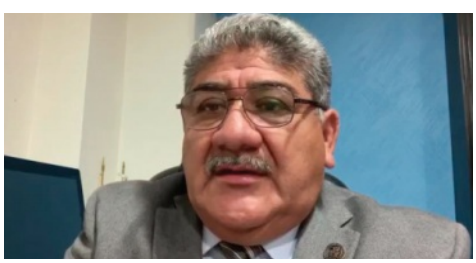
맡겨진 사역을 진실하게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다마라즈 라살람 목사 (인도 총회장)

남인도 교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손달익 목사님이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서 말씀과 성례전의 집례자로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손목사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 목사님이 맡겨진 사역을 진실함으로 감당하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성실함으로 준비해 나갈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손목사님에게 임할 것입니다.

목사님 손에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이 성취되기를



아돌포 아리아스 홉 목사 (멕시코민족장로교회 총회장)

저는 멕시코장로교를 대신하여 서울교회에 취임하시는 손달익 목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손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셔서 섬기게 하신 교회의 목회 사역에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복과 능력을 더하셔서 목사님 손에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이 성취되기를, 항상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멕시코민족장로교의 안부와 축하를 보냅니다.

위임식 축하

잃어버렸던 천국 열쇠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다시 찾은 환희·감격·감사로 채워진 날 되시길 !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천국 열쇠(마 16:19)를 어떻게 묘사했을까?

그 길이와 넓이와 폭도 중요하지만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가?

신약신학을 평생 공부한 나 자신도 위의 구절에 대한 깊은 연구가 거의 없었던 터라 1970년대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부는 초 겨울철에 독일에서 국제 로잔대회가 있어 아시아 의장으로 참여하면서, 10여 년 전 학생 시절 튜빙엔 대학에서 연구하던 곳이 그리워 다시 잠시 대학 도서관을 방문, 우연히 신문을 보고 놀랐다.

구텐베르그 박물관에서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맞아 종교개혁과 구텐베르그 인쇄술에 대한 전시회가 한 달 동안 열리고 있는 광고를 보게 된 것이다.

1450년대 구텐베르그 성경이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 출판됨으로, 당시 사제들만 읽던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읽는 금속 인쇄술의 발명은 종교개혁 운동을 세계화시키는 촉매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려 때 몽골군이 침략해 올 때, 강화도로 임금이 피난가서 8만대장경을 목판으로 만들어 불심으로 국가를 보위하려 한 예는 있었으나, 금속활자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졌었다. 다만, 조선 전기에 금속활자로 찍은 책은 발견되었으나 금속활자는 찾지 못해 어둠에서 추측성 주장만 제기되던 중, 구텐베르그 성경보다 16년 이전에 금속활자 갑인자의 실물이 문화제청 국립고궁 박물관에서 지난 6월 서울 인사동에서 발굴된 조선 전기 금속활자 1,632점 중 53점이 갑인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갑인자 금속활자는 세종 16년에 왕명으로 만든 활자로 세계 문명사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지난 11월 2일 국립고궁 박물관 특별 전시를 통해 전 세계에 금속활자가 유럽이 아닌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는 선포를 했다.

필자는 독일 마인츠 구시가지 구텐베르그에서 천국 열쇠를 처음 보았을 때, 을씨년스런 초겨울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긴장에 긴장을 더해 그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하나밖에 없는 "천국 열쇠"를 소지하게 되어 한국으로 가져와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IXΘUS(물고기) 형상의 서울교회 로고와 예배당 전경을 그래픽으로 그려 손잡이 양면에 새기고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전 3:15) 말씀까지 새기고 2005년 11월 27일 서울교회 헌당식 때 오정수 건축위원장께서(길이30cm, 폭5cm, 무게800g) 열쇠를, 당회장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하여 천국 백성에게만 이 열쇠를 사용해 열고 닫는 일을 하라 했다. (코람데오 I 권, p405에서 상단 우측에 황금 열쇠 수건 시, 이 목사가 높이 든 천국열쇠를 사진으로 볼 수 있다.)

헬라어로 베드로(페트로스 πετρος) 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하신 말씀의 반석 (페트라 πετρα)은 남성과 여성 명사로서 동의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하신 것은 교황이나 왕도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행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신앙고백을 한 성도에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골 1:18)이지 그 이상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2대 목사에게 2011년 열쇠를 인계했으나 "그 열쇠의 존재가 가물가물한다"며 잊혀진 것이 되어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국내외의 많은 과학자, 미술 교수들이 동원되어 재건의 노력을 완성할 무렵, 하나님의 특은으로 그 열쇠를 3대 목사께 위임하는 시간에 잃어버렸던 천국 열쇠를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 다시 도금하여 오늘 유럽인이 만든 천국 열쇠에 한국인의 금속활자인 한글로 새긴 이 열쇠를 만들어 헌정케 된 환희와 감격과 감사를 이 일에 땀 흘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오고 오는 세대에 대를 잇는 천국시민 양성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천국 열쇠"로 구원의 문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열었고 그후 유대인(행 2)과 이방인에게(행 10) 그리고 지은 죄는 용서까지 받았다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들과 용서를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까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진 것이다.

이 복과 은혜·긍휼·평강을 받고 누리시는 서울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원로목사 이종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유년부 김하윤입니다.

손달익 목사님! 서울교회에 이 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에 고2 유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목사님을 서울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서울교회에 넘칠 거라 확신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1부 회장 최희연입니다.

청년부를 대표해서 손달익 담임목사님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 서울교회로 목사님을 불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서울교회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직자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글

금 그릇, 은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병무 은퇴장로

먼저 우리 서울교회 회복에 전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때를 같이 하여 임직 받으시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과 가정에 축하를 드립니다.

창립 30주년의 뜻깊은 때에 교회의 큰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니 이 또한 주님의 특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남다른 주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5년여를 연단 받으며 회개와 각오를 하고 또 했습니다.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며 깨어 있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소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되려면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삶으로 실천하여 거룩한 그릇이 되려고 힘써야 할 것이며 상대방의 대접을 받기 보다는 내가 먼저 웃음 띤 사랑의 얼굴로 다가가는 겸손이 필수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부름 받은 자로서 무엇으로 응답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생으로 거듭났으니 주님사랑 이웃사랑으로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팎에 흐르게 하고 기쁨과 감사의 봉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와 권사는 계급이 아니고 평신도 직분 중의 하나임을 심비(心碑)에 새기시어 저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되시어 잘했다 칭찬 받는 남·여 종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나무 그릇이나 토기 그릇이 아닌 금 그릇, 은 그릇으로 쓰임 받아 귀한 주인의 그릇이 될 줄 믿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감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함께 사명자로서 일어나 함께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임직자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이영희 권사
(권사회 증경회장)

먼저 어렵고 힘들었던 분쟁의 시간을 지나 온전히 교회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울러 교회 설립 30주년과 함께 서울교회 제14대 권사로 부름 받아 취임하게 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서울교회의 설립은 불의와 거짓을 외면하지 않고 평생을 섬겨오던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나 오직 하나님 면전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 선배 권사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배 권사님들은 교회 설립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진리를 따라 주 앞에 엎드려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눈물로 쉼 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김치 세미나와 같은 큰 행사들을 진행함에 있어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 천여 개의 김밥을 준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강행군 속에서도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행동의 어머니셨습니다.

권사의 헌신이 서울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고 권사의 기도가 서울교회를 받드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세우신 서울교회 권사 직분자의 모범은 계대를 이어 후배 권사들에게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 분쟁의 아픔 속에서도 서울교회 권사들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쉼 없이 기도했습니다. 총회로, 노회로, 법정으로, 길거리로 서울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담대하게 호소했습니다. 주일 식사 대접을 위해 토요일마다 20키로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여 추위나 더위에 연연하지 않고 비닐하우스에 모여 주일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조력자, 십자가 군병, 모퉁이 돌이 서울교회 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가 모든 분쟁을 끝내고 변화와 발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 부흥하기 위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82분의 귀한 분들을 서울교회 권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부디 나의 자랑, 나의 사랑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을 막아주며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목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교회의 수장이 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잠언 31:30-31)

임직을 받으며

유익과 덕을 세우는 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12 피택집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4주 동안 교회에서 진행되는 피택자 교육을 통해 직분자의 사명감과 서울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배웠습니다.

저는 배운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거룩한 일과 서울교회 재건을 위하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며, 어디로 보내든지 그곳에서 유익과 덕을 세우기를 다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사님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같이 주님께 칭찬 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간구합니다

김경순1 피택권사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피택권사 임직자로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고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배운대로 목회자를 도와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권사의 직분을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11월 14일)에 치뤄진 피택집사·피택권사들의 당회고시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
2021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 22(월) -11. 27(토) 새벽 5:00-6:00

강사 : 손달익 담임목사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 2:10)

2021 사명자대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1 사명자대회는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10월 10일(주)부터 시작하여 은혜롭게 달려와 이제 마지막 주간을 남겨두고 있다. 24시간 릴레이기도는 연인원 10,380명이 참여하였으며 교회학교와 각 부서에서 '1인 1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제 마지막 주간인 11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일주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새벽 5시에 진행된다.

오랜 분쟁을 끝내고 교회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울교회의 30년을 뒤돌아보며 우리 다음 세대가 이끌어 갈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더욱 감사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랑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 성찬식도 함께 –
– 찬양예배 시 위임예식 · 임직예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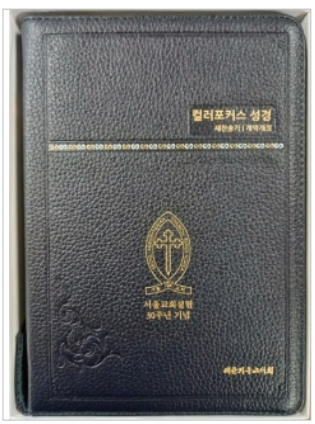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는 그동안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중단하였던 성찬식을 개별 성찬키트를 준비하여 Ⅰ·Ⅱ·Ⅲ부 예배 시마다 진행한다.

또 드려지는 추수감사 헌금은 올 한 해는 물론 교회 설립 30주년과 오랜 분쟁 끝에 교회 회복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기로 하면서, 그 모아진 감사헌금은 서울교회에 주신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의미로 전액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손달익 담임목사 위임예식이 서울강남노회 주관 하에 진행되고, 이어서 그동안 모든 훈련과정을 마치고 당회고시와 당회원 면접 절차까지 마친 안수집사 72명, 권사 82명에 대한 임직예식이 있다.

다음 주일,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주일

– 출석교인들에게 기념 성경 증정 –



교인들에게 선물로 증정할 성경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주일로 지키며, 교회 회복과 교회 설립 30주년을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기념 성경(찬송 합본)을 Ⅰ·Ⅱ·Ⅲ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하 떡과 함께 선물로 증정한다.

오후 찬양예배 시 진행될 1부 감사예배 순서에는 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예배 설교를 담당하고, 이종윤 원로목사가 작사하고 박정선 은퇴장로가 작곡한 '열렸다 하늘 문이'를 원곡자의 지휘 하에 연합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되며, 아울러 지난 30주년을 돌아보는 기념 영상과 이종윤 원로목사의 영상 축하메시지 순서도 있다.

이어서 2부에는 서울교회 성도들로만 구성된 음악인들의 감사음악회가 진행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22일	월	고전 13–16		요 5:1–7:39	
11월23일	화	고후 1–3		요 7:40–11:57	
11월24일	수	고후 4–8		요 12–16	
11월25일	목	고후 9–13		요 17–21	
11월26일	금	갈 1–3		행 1–5	
11월27일	토	갈 4–6		행 6–9	
11월28일	주일	엡 1–4		행 10–13	

2021 성경암송대회

대상 교회학교 : 이하륜(유치부) / 장년부 : 김진달
영어부 : 노문환

유아부
믿음상 : 오희엘 / 소망상 : 임누리 / 사랑상 : 박시현 김서환 심기언 안서은 양승혜 이린하 정혜슬 차시온 / 사랑상 :고민정 구진영 김세호 신아령 안재희 이남용 이현정 임대중 정신아 최근우(교사)

유치부
소망상 : 유하민 / 사랑상 : 최아준 김재경 정혜윤 최은성

유년부
소망상 : 이하온 / 소망상 : 김하윤 오수빈 주하연 김재윤 유서연 / 사랑상 : 우정서 한세희 김이환 최지성 유다연

초등부
믿음상 : 한예승 / 소망상 : 임하율 오선아 임하람 한세아 유하연 / 사랑상 : 김하진 윤서진 배은찬 조건우 / 사랑상 : 송미령(교사)

중등부
사랑상 : 한예준 조연우 오유나 장한솔 이인애 임세아 김채언 이시연 임라임 김도윤 장유정 이윤익 김은송 문영은 정은채 / 사랑상 : 이겸손 김대훈 오선혜 오원종 전미경(교사)

고등부
믿음상 : 임하린 / 소망상 : 최수용 / 사랑상 : 정은지 장유선 장해윤 유성결 소혁 우정연

사랑부 사랑상 : 최시훈

장년부
믿음상 : 김미성 / 소망상 : 장정화 / 사랑상 : 한춘홍 박유진

장년부 단체
믿음상 : 서희숙 이봉선 허숙 김찬진 백영자 조정옥 김영정 이건희 문승순(리브가전도회) / 소망상 : 박상훈 김승록 백도환(스데반회)

영어부 믿음상 : 최영은

총 : 96명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 25. 목요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정기이사회에 참여한다.

■ 떡 제공 : 송인수 집사 · 송연재 · 송지혜 성도 가정
(은혜 중에 장례를 마치고)

■ 찬양예배 시 떡 제공 : 교회
(추수감사절, 위임예식, 임직예식을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와 받는 이 모두 성령충만의 은혜 안에서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거룩하고 능력있는 사명자로 세움받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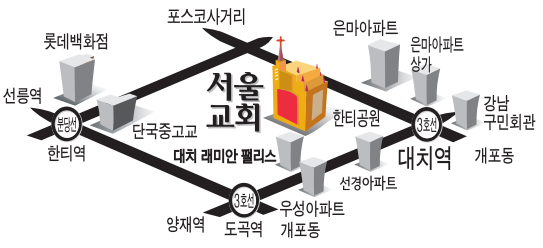
2. 10인의 피택장로와 21일 임직 받은 72명의 집사, 82명의 권사를 주님 손에 붙드시어 성령충만한 서울교회 청지기 되게 하시고, 28일 '서울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힘있게 새 출발하도록 역사하소서.

3. 위드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가 속히 종식되며, 국가지도자를 뽑는 선거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향한 진전이 있게 하여 주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요예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